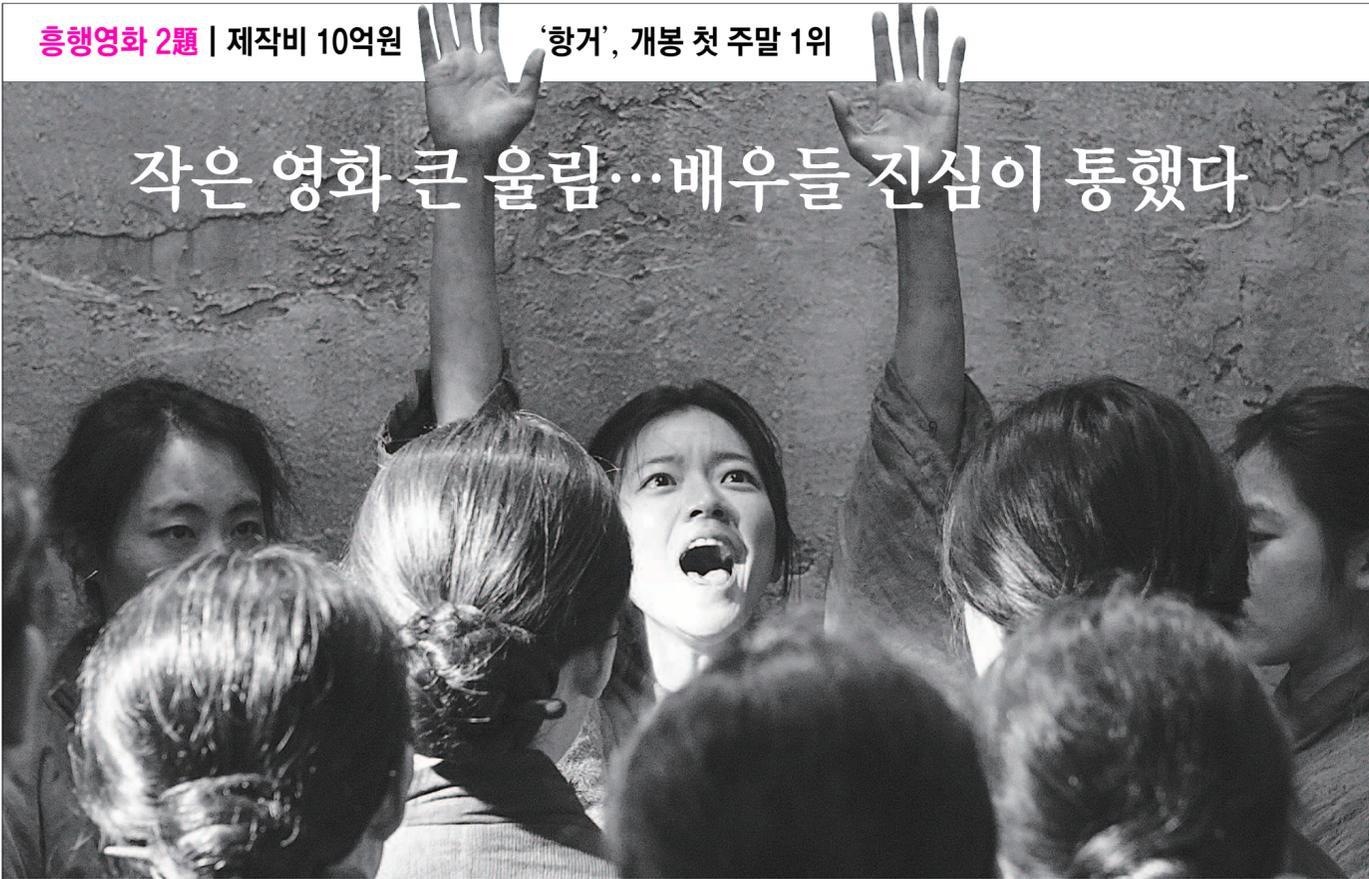


작은 영화 큰 울림...배우들 진심이 통했다



고아성 주연의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가 저예산 등 한계를 딛고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철저한 고증을 거친 영화는 1919년 3월1일 만세운동에 참여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여성 운동가들에 주목한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적은 예산 불구 배우들 적극 참여 고아성 김새벽 정하담 열연에 호평 SNS선 '대한독립만세' 인증샷도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가 값진 결과를 얻고 있다.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를 외친 여성 운동가들의 삶을 10억 원 규모 저예산으로 완성한 영화로 지닌 여러 한계를 딛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기획부터 제작, 개봉에 이르기까지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일군 큰 울림이다.

'항거:유관순 이야기'(제작 디씨지플러스)가 3일까지 약 80만 명을 모았

다. 2월27일 개봉 당일 9만9754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동원해 3위로 출발하고, 1일 26만2493명을 모아 1위에 처음 오른 뒤 3일까지 순위를 지킨 결과다.

3.1운동 100주년 분위기에 힘입어 유관순 이야기인 '항거'에도 관심이 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반응은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4일 만에 손익분기점(50만 명)까지 넘어섰다. 그 시대와 인물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는 관객 평가도 이어진다. 상영이 끝난 뒤 자발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관객이 등장할 정도다. 이는 SNS에 공개돼 시선을 끌고 있다.

'항거'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3.1 만

세운동에 참여한 여성 운동가들이 서대문 감옥 8호실 여옥사에서 보낸 1년의 기록이다. 열일곱 소녀 유관순(고아성)을 중심으로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김새벽), 유관순의 이화학당 선배인 권애라(김예은), 다방에서 일하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옥이(정하담)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주목한다.

연출을 맡은 조민호 감독은 우연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았다가 유관순의 사진을 보고 영화 기획을 시작했다. 감독은 "슬프지만 당당한 눈빛에 울림을 느꼈다"고 돌아왔다. 이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실제 인물들의 사연을 구성했고, "유관순의 고문 흔적을 날것 그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흑백영화를 택했다. 감독의 이런 선택은 곧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는 원동기 됐다.

저예산 영화인 탓에 배우 캐스팅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진행 과정은 의외로 순탄했다. 제안을 받은 배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상업영화에서 활약하는 베테랑 제작진도 뜻을 모은 덕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촬영에 임했다.

특히 유관순 역의 고아성은 이번 작품으로 진가를 발휘한다. "무서움이 앞섰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뛰었다"는 그는 유관순의 마지막 모습 촬영을 앞두고 실제 5일간 단식한 채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해외서도 잘 나가는 '극한직업'

대만서 '알리타'와 1·2위 경쟁 북미서도 인기, 상영권 확대도

영화 '극한직업'이 해외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북미지역에서는 상영권을 확대하며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3일 대만 박스오피스 집계에 따르면 2월22일 현지 개봉한 '극한직업'은 2위에 올랐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알리타:배틀 엔젤'에 이은 것으로, 두 영화는 평일 1위와 2위를 오르내리며 경쟁 중이다.

'극한직업'의 대만 흥행은 '신과함께' 시리즈에 이어 한국영화의 잇단 성과로도 받아들여진다. 2017년 '신과함께:죄와 벌'과 2018년 2편 '인과연'이 각각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비롯해 상위권에 오르면서 하정우, 이정재, 도경수 등 주연배우들이 쌓아온 인지도에 시너지 효과를 더해 현지 한류 열기를 재점화했다.

또 미주 지역 흥행 순위 집계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1월 24일 LA의 2개 극장에서 개봉한 뒤 3일 현재까지 뉴욕,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도 상영해 129만 달러(13억여 원)



'극한직업'

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북미지역 한국영화 개봉작의 9위에 해당한다. 1위는 '명량'의 258만여 달러(28억여 원)이다. 미국의 경우 교포 중심 관객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하지만 대부분 관객이 매진되면서 기존 한국영화와도 대비된다.

한편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

르면 역대 개봉작 흥행 2위인 '극한직업'은 2일 현재 1369억여 원의 매출액으로 1위 '명량'의 1357억 여원을 앞질렀다. 누적관객은 1594만여 명으로 '명량'의 1761만여 명보다 적지만 극장 평균요금(2017년 8286원)이 오르면서 매출액 기준 1위에 올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BTS, 세계 스타디움 투어 완전 매진

전 공연 입장권 90분 만에 완판 팬들 요청에 5개 도시 추가 공연

글로벌 그룹다운 '흥행 파워'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진행하는 세계 스타디움 투어 티켓을 모두 매진시킨 데 이어 추가 공연을 하기로 했다.

3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5월4일 미국 LA 로즈볼 스타디움부터 11일 시카고 솔저 필드, 18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이어 6월1일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 7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여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5개 도시의

공연 티켓이 매진됐다. 전 공연 모두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됐다.

이에 빅히트 측은 입장권을 예매하지 못한 팬들의 '추가 공연 요청'에 매진된 5개 도시에서 추가 공연을 결정했다. 관련 예매는 조만간 각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각 도시의 공연장 규모는 각 무대 모두 최소 8만 관객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즈볼 스타디움은 1984년 LA 올림픽 축구 및 1994년 미국 월드컵 결승전 등이 열린 곳으로 수용 인원만 9만 명이 넘는다.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도 8만 객석에 달하며 2026년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지는 무대다.



방탄소년단

이 가운데 압권은 웹블리 스타디움. 손흥민이 활약 중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홈구장이자 비틀스, 마이클 잭슨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오른 무대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로 최근 다시

화제를 모은 1985년 '라이브 에이드'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UPI는 2일 "방탄소년단이 90분 만에 웹블리 티켓을 매진시켰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jny@donga.com

#해시태그 컷



로제 각선미 비결은 킬힐?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활동하면서 신는 구두를 공개했다. 로제가 대기실 한 쪽에 앉아 가지런히 정돈된 킬 힐을 바라보고 있다. 로제의 무심한 눈빛에 마치 구두들이 그의 선택을 받으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팬들은 핫팬츠로 드러난 로제의 몸매에 시선을 두면서 "각선미의 매력은 킬 힐인가" "굽의 높이가 어마어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블랙핑크 #로제 #구두부자

김남길 잇따른 부상 불구 '열혈사제' 시청률 고공행진



김남길

연기자 김남길이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촬영 도중 누골 골절 부상을 당했다. 손목 부상에 이어 두 번째다. 드라마의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온 악재다.

김남길은 2일 '열혈사제' 촬영 도중 액션장면을 소화하다가 누골 골절 부상을 입었다. 앞서 2월26일에도 촬영 중 손목 부상을 당해 김스를 한 상태였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3일 "누골 3번 골절, 4번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혈관 염증 수치가 높아 정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열혈사제' 제작진은 2일과 3일 김남길 출연 분량 촬영을 취소했다. SBS 관계자는 "연기자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김남길의 상태를 고려해 촬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연배우의 부상에 따라 최악의 경우 드라마가 결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남길이 추가 검사 및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진은 "방송 전 일찌감치 촬영을 시작해 확보한 분량이 많아 방송 일정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길의 부상 악재에도 '열혈사제'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일에는 17.2%(닐슨코리아)를 돌파하면서 방송 이후 최고시청률을 세웠고, 2일에도 16%를 유지했다. 드라마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무능한 형사가 살인사건 공조 수사를 벌이는 이야기다. 김남길은 국정원 출신 사제 김해일을 연기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